

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

2019. 1. 21.

금 융 위 원 회
금 융 감 독 원

목 차

I. 추진 배경	1
II.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	2
1. 제도의 기본 틀	2
2. 중소·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	3
3.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	6
4. 기존 증권회사와 협업 관계 구축	7
III. 기대효과	8
IV. 향후 추진계획	9

I. 추진 배경

-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체계가 상장기업 중심으로 설계*되어 있어 비상장·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에 한계

* 증권신고서 제출, 외부감사 수감의무, 사업보고서 및 수시공시 등의 의무 부과

-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조달 수단으로 직접금융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

* 중기 자금조달비중(% , '17년) : 대출(73.4) 정책(23.4) 직접금융(2.2) 기타(1.0)

- 모험자본 중개시장에 진출하려는 시장 참여자는 있지만,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증권사 출현을 어렵게 하는 제도적 한계 존재

-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(크라우드펀딩)을 제외한 투자매매·중개업은 모두 인가가 필요하며 자본금 등 진입장벽이 높은 수준

* 美·日の 경우 투자매매·중개업은 원칙적으로 등록제이며 자본금 요건도 낮은 수준 [(美) 5만불~25만불, (日) 5천만엔 이상]

- 모든 증권사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특화·전문 소형 증권사 설립·운용시 기대수익에 비해 규제 비용이 높은 상황

* 55개 증권회사 중 46개사가 종합증권업 인가 보유('18.11월말 기준)

- 기존 증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금융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어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

* '16.4월부터 중기특화 증권회사 제도를 운영하였으나, '18.3월까지 유상증자 93억원, 직접투자·출자 623억원 등 자금조달 지원 실적이 미미

- 기존 증권사의 경우 고객재산 보관 업무 및 각종 거래관계로 인해 규제를 완화하기도 곤란한 측면

⇒ 중소·벤처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신규 제도를 도입하여 맞춤형 규제를 마련할 필요

Ⅱ.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

〈 기 본 방 향 〉

- ◆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신규 Player로서 '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'를 도입
 - 자본시장법에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전문사모 투자중개업 신설
- ◆ 제도 설계는 중소기업의 “자금조달 원활화”와 “투자자보호”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도입
 - 중개업체의 진입절차 및 요건, 적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되,
 - 대상고객과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

1

제도의 기본 틀

□ 중소기업 자금조달 관련 비즈니스를 전문으로 하는 사모중개 회사에 완화된 별도의 진입경로를 신설하고 적용 규제도 간소화

- 투자중개업*의 특수한 형태로서 기존 인가 단위와는 별개의 등록 형태의 진입단위로 신설

* 투자중개업 :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·매수,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, 청약,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·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, 청약,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업 → 업무범위가 단순 중개 행위에 한정되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

- 규제 차별화 등을 위한 탄력적인 입법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별도의 장(章)을 신설

- 자본시장법령 상 규제체계*를 준용하되,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전문사모중개회사의 업무범위, 영업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례 마련

* 진입규제, 지배구조규제, 영업행위규제, 기타 특례조항 등

□ **(업무범위)** 중소·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모험자본을 보다 많이, 보다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설정

- **(본질업무)** 사모발행 증권에 대한 중개 업무와 비상장 증권 중개 업무
 - 다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집 또는 매출을 위한 중개업무는 수행 불가
- **(부수업무)** 중소·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중소·벤처기업 관련 기업금융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전반을 허용
 - 증권신고서 작성 지원 등 증권발행 자문, 영업·자산 양수도 및 인수·합병·분할 등 구조조정 자문, M&A 관련 가치평가 등
- **(겸영업무)** 중소·벤처기업에 원스톱 자금조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출의 중개·주선 또는 대리업무* 겸영을 허용**
 - * 대출의 중개·주선 : 대출 수요자와 타 금융회사를 연계해주는 업무
대출의 대리업무 : 대출 신청, 대출서류 작성 등을 대행해주는 업무
 - **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출 중개업무 등을 수행하는 형태

□ **(진입 요건)**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소형 투자중개회사가 활발히 설립될 수 있도록 진입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

- **(진입절차)** 사업계획 타당성을 심사하지 않는 등록으로 진입
- **(자기자본 등)** 투자중개업 자본금의 최저 수준인 5억원*으로 설정
 - * 현재 전문투자자 대상 증권 중개업의 자본금은 15억원,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한 크라우드펀딩업의 자본금은 5억원 수준인 점 등을 감안

- 소형·특화 투자중개회사 육성이라는 제도도입 취지와 각종 규제가 면제되는 점을 감안하여 진입시 자산총액은 일정규모 미만(예 : 1천억원)으로 제한
- **(법인격)** 상법상 주식회사,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법인격을 허용
- **(인력요건)** 투자권유자문 1인, 내부통제 1인 등 최소 2인 이상의 전문인력 요건만 설정

< 투자중개업별 인력요건 비교 >

인가업무	기업금융	조사분석	투자권유	위험관리	내부통제	전산	계
증권 투자중개업	-	1	5	1	1	2	10
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	-	-	-	-	1	1*(2)	2(3)
전문사모 투자중개업	-	-	1	-	1	-	2

* 전산설비를 종합 위탁한 경우 1인, 종합 위탁하지 않는 경우 2인

- **(물적설비)**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물적설비(통신수단, 업무공간, 사무장비 등)는 요구
- **(임원요건)** 임원은 금융투자업자 등에게 요구되는 「지배구조법」 상 결격사유*에 해당되지 않을 필요
 - * 미성년자, 파산자,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
- **(대주주 요건)**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,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요건은 요구
 - 다만, 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그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

□ **(적용 규제)**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하여 적용되는 규제를 최소화

○ **(건전성 규제)** 고객재산 보관금지 등 업무범위가 제한되고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므로 NCR 등 건전성규제* 배제**

* 건전성 규제 : 순자본비율(NCR), 레버리지비율, 유동성비율

**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의 경우도 동일

- 경영실적 및 재무실적 등에 대한 업무보고서 제출시기도 매분기(금융투자업자 : 매월)로 완화

○ **(투자권유)** 전문투자자 대상 영업으로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시 적용되는 적합성*, 적정성** 및 설명의무 규제를 배제

* 적합성 원칙 :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·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 금지

** 적정성 원칙 :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받을 의무

- 다만, 전문·일반 투자자를 분류하기 위한 고객파악의무(Know your customers)*와 전문투자자에게도 적용되는 부당권유 금지 규제는 적용

* 고객파악의무 :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

○ **(지배구조 및 내부통제)** 크라우드펀딩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

- 대주주 변경 시 사전승인 절차 없이 2주 이내 사후보고

- 중개업무만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인 선임의무는 배제

○ **(기타사항)** 고객재산 보관금지 등 업무범위를 감안하여 소유증권 예탁, 투자자 예탁금 별도예치, 투자자 예탁증권 예탁, 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규제를 배제

* 단, 계약서류 교부, 매매형태 명시, 자기계약 금지, 임의매매 금지, 매매명세 통지 규제 등은 적용

- 일부 규제 사항*에 대한 신고·보고 접수 및 준수여부 검토 권한을 금융투자협회에 위탁하여 감독 업무를 효율화**(단,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투자중개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위탁)

* (예) 내부통제기준 설정, 겸영업무 사전신고 등

** 전문사모집합투자업, 투자자문업, 투자일임업 등 등록업무에 대한 감독 업무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검토

3

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

☐ 적용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투자자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

- **(상호규제)** 기존 증권회사와 혼동 방지를 위해 상호에 '증권회사'는 포함하지 않고 '(가칭)투자중개회사'를 포함하도록 의무화
- **(대상고객)** 사모발행 중개 등 업무 특성상 투자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대상고객을 전문투자자*로 제한

* 전문투자자 : 은행, 보험 등 금융기관, 상장법인, 지자체 등 기관투자자와 손실감내능력,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

- **(업무제한)**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업무는 제한하고, 위반시 등록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신규진입 제한 등 제재 강화
 - 고객계좌 개설 및 관리 업무 금지 및 투자자 재산 보관 금지
 - 투자일임 금지 및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·투자자문·청약접수 금지
- **(이해상충 방지체계)** 투자자 간 이해상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등을 갖추도록 의무화

□ 기존 증권회사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간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

- **(인가정책)** 기존 증권회사의 겸영(In-House)은 허용하지 않되,
 - 대형 증권회사와의 지분제휴를 통한(spin-off, 분사형 모델 등) 설립을 허용하여 소규모 신생업체가 원활히 설립되고 특화된 영업을 수행하도록 지원
- **(협업 촉진)** 기존 증권회사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 장치 마련
 - 기존 증권회사 등에 위탁 가능한 업무 범위를 넓게 규정하여 중소기업증권 전문 투자중개회사의 영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략적 업무연계 등을 통해 새로운 영업 모델 출현을 유도
 - * (예) 중소기업 M&A 중개업무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수행하고, 고객의 자금 및 증권에 대한 보관·관리 업무는 기존 증권회사에 위탁
 -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중개한 증권 중 중소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초대형 IB의 기업금융자산*으로 인정하여 중간 회수시장을 제공
 - * 종투사의 경우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50% 이상을 기업 금융관련자산에 운용하여야 함(자본시장법 시행령 §77-6)

< 초대형 IB의 기업금융자산 범위 >

구분	기업금융자산 분류(금투업규정 §4-102조의6)
대출	기업에 대한 대출 및 어음의 할인·매입
발행	발행인이 기업인 증권
유통	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주식
	코넥스주식 및 A등급이하 회사채

Ⅲ. 기대효과

①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·벤처기업의 성장 생태계 구축

-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특화 투자중개회사 도입으로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*

* (현행) 1,196개 산업단지 내 입점해 있는 국내 증권사 영업점(총 영업점 1,094개)은 16개에 불과 → (개선) 제도 도입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다수 입점할 것으로 예상

- 벤처캐피탈*, 엔젤투자자 등 모험자본 투자자와 “창업·성장” 단계의 혁신기업을 연결 해주는 신규 Player 역할 수행

* '17년말 기준, 148개 벤처캐피탈에서 21.3조원의 투자자원을 운영 중

- “성숙” 단계 기업의 경우 상장 및 성장자금 확보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

② 자본시장의 외연 확대 및 특화·전문화 촉진

- 종합 증권회사 모델에서 벗어나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소규모 투자중개회사 모델 출현

- 기존 대형 증권회사간 전략적 연계서비스, 업무위탁 등의 활성화로 시너지 발생

- 모험자본 투자자와 혁신기업을 기존 대형 증권회사와 연계 하여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다양성을 제고

- 제도권 밖에 있는 유사 금융업자*를 제도권 내로 포섭하여 시장의 건전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

* 중소·벤처기업에 대한 M&A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하는 컨설팅 업체 등

③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

- 진입요건 완화에 따른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촉진*으로 금융투자산업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**

* 자본연구원 : 5년('19~'23년)간 총 28개의 회사가 설립 될 것으로 추정

** 사모펀드운용업 사례 : 등록제 전환으로 2년('15년~'17년)만에 운용사가 2배 증가하고(93사 → 201사), 일자리가 28% 증가(5,259명→6,733명)

- 혁신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를 통해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

IV. 향후 추진계획

- 중소·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출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

- '19.1사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제출

- 법안 통과 시,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신속히 정비

⇒ '19년 중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추진

참고1

기존 증권회사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비교

구분	기존 증권회사 (투자중개업자)	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
업무 범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유업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금융투자상품의 발행 및 유통 중개 일반 ○ 겸영업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금이체, 외국환업무, 퇴직연금, 전자금융업무 등 금융 관련법령상 허용된 업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유업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증권 발행 및 유통 중개 ○ 겸영업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출 중개 · 주선 · 대리 ※ 고객계좌 개설·관리 등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업무는 제한
진입 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진입제도: 인가제 ○ 주요 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자기자본) 취급상품범위에 따라 차등(5억~150억*이상) *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, 장내외 파생상품 전부 취급하는 경우 - (인력) 취급상품범위에 따라 차등(후선 필수인력 4인 포함해 최소 5인 이상) - (물적설비) 업무공간 · 사무장비 외에 일정수준 이상 전산 · 통신설비 구축필요 - (대주주) 충분한 출자능력, 건전한 재무상태, 엄격한 사회적 신용 요구(일정기간내 제재 받은 경우에 결격 발생 등) - (사업계획) 타당성 · 건전성 충족(미충족시 인가 불승인) - (이해상충방지체계)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등 마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진입제도: 등록제 ○ 주요 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자기자본) 5억원 이상 - (인력) 최소 2인 이상 - (물적설비) 최소한의 수준만 필요(전산설비 불필요) - (대주주) 좌동(대주주가 금융기관인 경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주주 영위업무 고려) - (사업계획) 심사하지 않음 - (이해상충방지체계) 좌동
적용 규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전성 규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NCR, 레버리지비율, 유동성 비율 ○ 영업행위 규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투자권유규제, 증권 예탁, 예탁금 별도예치 등 ○ 기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적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전성 규제: 미적용 ○ 영업행위 규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부 투자권유규제, 증권 예탁, 예탁금 별도예치 등 미적용 ○ 기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배구조법 일부규제(준법감시인 · 위험관리인 선임의무) 미적용

- '17.4월 SEC는 Capital Acquisition Broker(이하 'CAB')를 별도 정의하고, CAB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매매·중개업자(broker-dealer)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법규 개정(안) 시행
 - CAB는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비상장증권 중개, M&A자문 등 일부 기업금융업무에 특화된 중개업자
 - 업무범위가 제한적임을 감안하여, 준법성 검사·서류제출 의무 경감, BCP(사업연속성계획) 면제 등 완화된 규제를 적용
- 기존에도 CAB업무만을 수행하는 회사*들이 있으나, SEC의 前규정체계에 따라 일반 투자매매·중개업자(broker-dealer)로 등록하고, 관련규제를 적용받음

* FINRA는 약 16~19% 회원사가 CAB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

< CAB 업무범위 및 제한업무 >

□ CAB 업무범위

- 증권발행 등에 대해 발행인에게 자문
- 영업·자산 양수도 및 분사·합병 등 재무구조조정 자문
- IB선택 관련 자문, 공모발행 관련서류 준비지원
- M&A 관련 공정가액 산정 등 가치평가, 협상서비스 등
- 비상장증권 매매 관련 기관투자자 대상 사모 중개·주선
- 비상장회사 M&A 관련업무

□ CAB 제한업무

- 고객계좌개설·관리 업무 금지, 투자자 재산 보관 금지
- 고객의 증권매매 상대방이 되거나 고객 증권 위탁매매 금지
- 투자일임업무 금지, 고유계정 매매거래 또는 시장조성 행위 금지
-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업무 금지